33. B형 혈액형 위암발생률 최대 61% 낮다

혈액형 중에서 B형 혈액형 유전자를 보유한 경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되지 않았거나 제균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위암 발생확률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센터 김나영 교수 연구팀은 2006년 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8년 4개월여에 걸쳐 분당서울대병원 에서 위내시경을 통해 비분문부(non-cardia) 위암 진단을 받은 환자 997명과 대조군 1147명에서 위암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여부, 헬리코박터 제균력, ABO 혈액형, 성별, 연령. 위암 가족력, 식생활 등 14개 요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B형(BB, BO, AB) 유전자가 있는 환자군은 B형이 아닌 환자군보다 위암에 걸릴 확률이 낮았는데, 특히 B형 대립유전자가 두 개인 경우(BB)에는 B형 유전자가 없는 경우에 비해 약 46% 가량 비본문부 위암에 걸릴 확률이 낮았다. B형 대립유전자가 한 개인 경우(BO, AB)에도 B형 유전자가 없는 경우에 비해 약 27%정도 위암 발생 확률이 낮았다.  
  
또한 조직형에 따라 위암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암(腺癌)을 ‘장형 위암’과 ‘미만형 위암’으로 나누었을 때 미만형 위암인 경우 B형 대립유전자가 두 개(BB)인 경우 61%까지 위암 발생 확률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 장형 암은 암세포가 한 곳에서 뭉쳐서 덩어리로 자라는 것을, 미만형 암은 깨알같이 작은 크기로 군데군데 퍼지면서 생기는 암을 말한다.  
  
김나영 교수는 “이번 연구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면서 16세 이상 한국인의 약 54.4%가 감염됐다고 보고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대한 제균 치료의 효과를 확인해 직접적인 위암 예방을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헬리코박터 감염에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 중 제균치료를 받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약 65%가량 위암 발생 확률이 낮다는 것을 입증했고, 발견 및 치료가 까다로운 ‘미만형 위암’ 환자군에서 위암 발생률이 80%나 줄어드는 등 특히 제균의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김나영 교수는 “분문부 위암과 비분문부 위암을 구분해 연구를 진행한 것이 혈액형과 헬리코박터 제균치료 여부에 따른 한국인의 위암발생률 차이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됐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위암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헬리코박터 제균치료와 이를 위한 건강보험 적용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